

이차전지 특화단지, 국내 최대 산단으로 키울 것

전북 새만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돼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날개를 달았다.

전북도는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특화단지 평가에 도전경쟁의 자세로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또 한번의 성공스토리를 썼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 그동안의 행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Q.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의 3개 분야가 경제안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첨단전략기술산업 생태계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단지'를 지정해 산단 개발, 인허가 처리, R&D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Q.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도정 핵심 현안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북은 지난해 12월 산업부 공모 당시만 해도 이차전지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습니다. 선정 가능성이 5%도 안됐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시대의 개막과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경쟁에 뛰어 들었습니다. 새만금이 이차전지 기업을 최적지라고 판단했고, 특화단지 지정이야말로 새만금의 비상과 전북의 재도약을 가능케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Q. 타 지자체에 비해 산업기반이 열악하다는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이번 공모는 이미 산업기반을 갖춘 지역과의 접지 않은 경쟁이었습니다. 충북은 2021년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셀기업 중심으로 이미 완성형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포항은 포스코와 포스텍 등과 함께 양극재로 특화했으며, 울산은 삼성 SDI와 유니스트 등 산업·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새만금이 이차전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새만금의 미래 확장성을 어필 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유치를 비롯해 대규모 부지의 확장 가능성,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탄소배출제로 100%(CF100)·재생에너지 100%(RE100) 실현,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소득세 5년간 최대 100% 감면까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 했습니다.

Q. PT맨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 5월 18일 서울에서 특화단지 발표 평가가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발표자로 나서는 일은 전무후무해서 산업부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산업 육성 의지와 간절함을 가장 잘 전달 할 수 있는 발표자는 도지사라는 생각으로 직접 발표에 나섰습니다. 도정 직원을 앞에서 20회가 넘는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한 만큼 발표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간절한 마음과 적극적인 의지가 심사위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Q.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계제하면 '조선, 울산하면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듯이 새만금하면 이차전지가 연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R&D 혁신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아울러, 2034년까지 기업 유치 누적 100개, 고용 창출 누적 1만명, 총매출 누적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열심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 개막 등 따라 미래 핵심산업 될 것으로 판단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 재도약 가능케 할 기회라 생각하고 도전

기반시설 열악한 것은 사실 새만금 미래 확장성 어필해와

밸류체인 고도화 등 바탕 산업 생태계 조기에 키울 것

2027년까지 4000여명 인력 수요 예상 TP에 인력양성 지원센터 개소 도내 6개 대학 등과 인력양성기로



전북 이차전지 실행위원회 출범식

Q. 향후 이차전지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전북도는 4대 추진전략 14개 세부 실행 과제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육성할 계획입니다. 4대 추진전략은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R&D 혁신허브 구축 △글로벌·초광역적 연계 인재 양성 기반 마련 △기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도는 4대 추진전략에 14개 실행 과제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예산 확보와 행정적 절차 이행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북도-전북테크노파크-새만금개발청-군산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기업과 연구 기관 등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간내에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Q. 현재 이차전지 기업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전북에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관련 기업만 23개사 7조원 규모의 투자가 성사됐습니다. 이중 LG화학·화유코발트, GEM·SK온·에코프루터리얼즈는 1.2조원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만간 국내 굴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예정돼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새만금에 4대 핵심소재 기업이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극재 기업으로 LG화학을 비롯해 하이드로 리튬 리튬포스 등이 있으며, 실리콘 고용량 음극재 향상을 세계 최초로 실현한 대우전자 재료, 전해액으로 유명한 엔켐과 천보 BLS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데, 방안은 무엇인가요?

-기업 수요 조사 결과 2027년까지 약 4,000명의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이에 전북도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또한, 도내 6개 대학과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 등과도 핵심인력을 양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의 대학을 연계해 공유화합을 설립하고, 폴리텍 대학, 미이스터고 등과 함께 제조인력을 양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Q. 끝으로 도민께 하고 싶은 말씀은?

-신청 당시만 해도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도전경쟁의 자세로 나섰습니다. 혹여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쏟은 노력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도전했습니다. 전북도의 도전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새로운 성공 스토리로 돌아왔습니다. 전북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도전하는 도민'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을 믿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단지로 키워내겠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 만큼은 전북이 가는 길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도민과 같이 걸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기자



산업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평가 최종 리허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부 정관 건의



전주 MBC 특별대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집어라